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CT 촬영 결과 아무 장기에도 전이가 되지 않았고 암세포는 2mm커졌습니다. 지금까지처럼 수술, 항암치료 받지 않고 주님께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9월에 다시 CT촬영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명철 선교사

우울증이 좋아져서 약을 끊게 하시옵소서

네팔 이승배 선교사

전립선 암 재발로 인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

이해영 선교사님은 암에서 많이 치유되었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선교사

남영미 선교님께서 갑상선 암으로 갑상선 완전 절제 후 호르몬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고산지대와 열대 지역 온도로 인하여 체온 조절이 힘들고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약으로 제어가 힘든 상황입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원재 선교사

아내분이신 장창선 선교사님께서 위암1기와 자궁근종을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퇴원하였습니다. 현재 회복중에 있습니다. 선교사님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최성목 선교사

중풍으로 인해 오른쪽 뒷목이 당기고 아파서 오른팔을 사용하지 못하며 혼자 일어나거나 식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여이주 선교사

간경변, 간경화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2022년 7월//////선교사 현황//////53개국//////329명//////자체 파송 73%

GRACE 선교소식

케냐에서 자라나는 새싹들 그리고 열매

- 황광식 선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한 학기를 잘 마치고 곧 두 번째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번 기도응답으로 교과서 헌금이 들어와 5학년 학생들의 책도 구입하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팬데믹에도 4년의 결실을 맺은 13기 졸업생들

지난 5월 13번째 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은혜한인교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신학교 강의를 해주시고, 권사님들은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13기 졸업생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2년을 쉬고 입학한지 4년만에 학사모를 쓰게 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현지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교사들에게 들의 꽃과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의미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이시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을 가져온다. 하나님은 어둠 속의 빛이시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을 가져온다.

에 젖은 모습으로 연속방송극이나 쇼, 오락프로 또는 음주, 음행, 마약, 탐욕과 같은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활의 일부로 지니고 있다면 참으로 빛에 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차거나 덥거나 하라고 경고한다(계3:16).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잠시 즐기는 것 때문에 영원을 망쳐서는 아니 된다.

간혹 참 빛 안에 있는 자일지라도 일시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때의 차이점은 참 빛을 가진 자에게 어둠이 스며들 때는 내주하는 빛이 강렬한 힘으로 어둠을 몰아내 회개토록 하여 즉시 회복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있어서는 아니된다. 어둠은 사탄의 것이다. 고로 영원한 형벌속에 있게 된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어둠은 세상의 가장 달콤한 것으로 자연스레 스며들어 또는 엄청난 시험으로 공격하여 우리를 쓰러트리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 삶에 영적전쟁의 단면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 1:5

따라서 빛의 자녀의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살전 4:1, 고후 5:9).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고전 10:31). 빛으로 오신 주님 (요 1:4)은 이 세상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인 진리로 세상을 비추어 하나님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만물이 회복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들은 모두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시는 것이다(계 21:1-7).

고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하고 소중한지를 깨닫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속도를 내어 어두워지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종지부를 찍을 준비를 마치고 계신 것이다(계 22:20). 마치 문지방을 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있어야 하는가? 빛 가운데이다. 빛 가운데 있는 자만이 오직 주를 따르는 자로 생명의 빛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요 8:12).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이유이며 메시지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신다(롬 12:2-8).

빛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삶이 세상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방법으로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의와 성결을 추구하는 삶,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송이 있는 삶, 희생적인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삶이다. 인내와 절제가 따르는 삶,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함께 하는 삶이다. 환희이든 절망이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삶이다. 이는 지속성이 요구된다. 끊기면 아니된다.

그런데 생명의 빛 안에 있다면서도 마치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하루에도 몇 번이고 빛과 어둠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다. 하루에 몇 번이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어느새 세상

영광의 빛인 하나님나라(천국)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의 무리(사탄과 쫓겨)가 천국으로부터 쫓겨나 기거케 된 곳이 바로 흑암의 세계인 우주이다. 결국 사탄은 어둠의 권세를 장악하고 빛에 대적하는 자가 된 것이었다.

이런 흑암이 있는 곳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님이 함께하신 초자연적인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3,4). 그리고 해와 달이라는 자연계의 빛을 두시고(낮과 밤)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가 살도록 특별히 에덴동산을 만들어 주신 것이었다. 빛(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이것이 빛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기원이다. 그리고 선악과를 통한 어둠의 유혹과 그에 따른 타락에 빠지지 않게 당부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죄를 덮어 쓰고 사탄의 종이 된 것이었다. 어둠의 자식으로 둔갑하여 어둠속에서(요 3:19)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양 몰입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결과이기에 사랑하는 우리는 살리시고 우리를 타락시킨 사탄과 쫓겨는 심판하여 멸하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성취기 위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주의 보혈과 부활로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 것이다(요 12:50).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 주신 것이다. 빛으로의 회복이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은 순간순간이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다. 이 싸움은 영적이기에 총,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더 치열하고 힘이 든다. 만일 이 싸움을 처절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자신의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심각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영적 전쟁은 이성과 감성이 혼합되어 충돌하는 빛과 어둠의 싸움이기때 민감하여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 빛과 어둠이 갈라지기도 하고 서로 영키기도 한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

태국에서 전하는 선교편지

-김인기 박춘희 선교사



새로운 사역

태국 불교도들이 보기에 기독교 장례식은 상대적으로 많이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 교회들이 처음으로 장례식 연합팀을 만들었습니다. 마을 불교인들도 기독교 장례를 통해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주세요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칸르양 지역교회 건축이 6개월째 진행중입니다. 또한 예배처가 없는 나계지역에 교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그곳을 예배처로 사용하기 위해 6월 중순부터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장소가 주님을 위한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선교소식

지난 4월 중고등부 인카운터 2기를 2박 3일간 가졌습니다. 지역 10개 이상의 교회들이 100여명이 모여 연합으로 진행하였고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 태국에서 임진섭 양윤희 선교사



선교소식

지난 4월부터 시작된 8주 동안의 인카운터를 은혜 가운데 마치며 5명의 불신자가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곳 태국 땅에서 영적 방해 가운데서도 인카운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역

인카운터 3기 사역을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25명의 캔디데이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성도양육과정의 열매를 위해
2. 사역 가운데 태국어의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3. 교회 개척의 때와 장소를 위해
4. 7월 인카운터를 위해
5. 딸 하엘이의 태국 현지 학교 적응을 위해

이스라엘 소식

- 김○○ 선교사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많은 현지인들을 만나고 특별히 노숙자(음식과 복음)

와 나눔(성경과 전도지)과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을 통해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제가 외국인이기때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기도해주세요

1. 노숙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현지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2. 이 땅에 와있는 수많은 나라의 노동자들의 예배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러한 모임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연합수련회

길고 길었던 코로나의 터널을 마침내 벗어났습니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모임이 가능해져 고아원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합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을 되새기며 목 놓아 부르는 찬양과 함께 서로를 의지해가며 진행된 공동체 훈련을 통해 함께 하는 기쁨과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진행될 선데이 스쿨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빌 2:13)

- M국 김○○ 선교사



연합수련회

고아원 아이들의 부족한 학습 능력을 위해 중요과목에 대한 학습지도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의 능력을 키우고자 창의력 계발과정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년 자립훈련 사역

청년 자립훈련 사역을 시작하며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한 삶의 목적과 동기부여를 나누며 복음의 씨앗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직은 낮은 성경적 교육이 잘 소화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1. 현재 상황을 위해서 - 아직도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테러와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안정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종교적 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성전건축 및 차세대 종합교육센터 - 재정을 공급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바닥 에폭시 포 장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영적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 날을 소망 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집중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차세대 Teaching Together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 차세대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믿음과 지식을 더불어 기도와 가치관을 심어가게 됩니다.
4.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가기에 비자 연장과 외국인 거주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라 소식

Your sub goes right here after the title



남아공 이은원 선교사

선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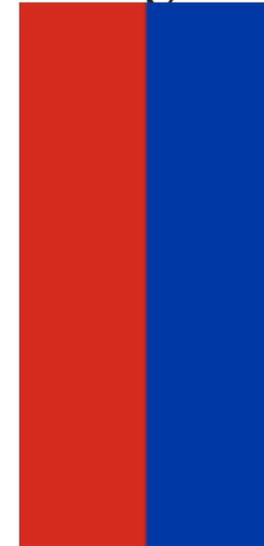
이곳 남아공은 건조하고 매서운 추위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병들고 사망하는 계절인 겨울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Monkey Pox"가 발견되고 감염 환자가 나타나서 한층 더 긴장하며 위축되어 있습니다. 현지인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새로운 사역

앞으로 새롭게 세워진 사역의 비전은 신학교를 통해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세우며 이 나라 전역에 사역자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슬렘가정과 가정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제목

1. 저희 가족과 함께 동역하는 6명의 직원들을 위해
2. 현재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3. 교회, 신학교, 프리 스쿨, 구제 사역과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를 위해
4. 선교에 사용할 자동차를 위해



R국 김○○ 선교사

선교소식

전쟁으로 인해 복음전파에도 많은 제약이 생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물가변화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는 교회와 사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힘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예카테린, 끼로 은혜교회에서 차세대 위한 청소년교육을 시작합니다.

기도제목

1. 예카테린, 끼로 은혜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한 청소년교육
2. 중독자 재활 센터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3. 26명의 장애인 사역
4. 뿌린스크 교회건축이 잘 완공되도록



베네쥬엘라 김도현 선교사

선교소식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73명의 현지 콜롬비아 목회자들을 모시고 진행된 콜롬비아 목회자 사랑의 불꽃 2기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매주 토요일 빈민가 어린이 밥상 공동체가 5-6곳으로 나누어 소규모로 모여 70여명의 팀멤버들이 매주 300-350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말씀과 따뜻한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

7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간 베네수엘라 신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강의는 저번에 이어서 제가 하게 됩니다. 신학교가 주님께서 강사와 통역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신학교 사역
2. 비자연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함으로
먼 곳에서 소식 전합니다.

-P국 변방에서 정OO 선교사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배움”이 마음에 잘 와 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가를 치루지 않은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는 그들의 태도가, 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크리스천인, 참석한 다른 크리스찬 사역자들에게 많은 도전과, 본인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 집에게 그 죄를 고하라”
(이사야58:1)

6월 초에 2박3일간 전도, 선교컨퍼런스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개종하여 모슬렘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요청하기를, 앞으로 컨퍼런스를 개종한 모슬렘들 대상으로 열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개종한 모슬렘들은 온간 핍박과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 어렵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 생활을 유지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하는

앞으로 새롭게 세워진 사역의 비전은 신학교를 통해 사역자들을 발굴하고 세우며 이 나라 전역에 사역자들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슬렘가정과 가정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현지 교회와 모슬림 선교를 위해
2. 학교와 교회 그리고 비즈니스의 자급자족을 위해
3. 세워진 신학교를 위해

팬데믹으로 계속해서 미루어졌던 정기 총회가 3년만에 열리어 앞으로의 성경번역과 영상 복음 전파의 결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봉헌된 신약 성경, 쪽 복음, 예수 영 화의 축하행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어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사랑을 전하기 위해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번역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현지인들과 함께 오디오 성경을 만들 계획입니다. 성경 번역 사역과 번역된 성경이 이곳에서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제목

1. 성경번역과 성경녹음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2. 남영미 선교사의 온전한 건강을 위하여



팍푸아뉴기니 김은용 남영미 선교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멕시코에서 송두선, 양정연 선교사

멕시코 칠판싱고에서 18일(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엔 7개 교회 80명의 현지인 팀 멤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섬겼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그동안 함께 제자양육을 통해 지역 교회에 세워진 주님의 제자들로서 마지막 때에 멕시코의 영혼들을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집회하기 3주전 부터 칠판싱고지역에 마피아들 간의 분쟁이 있었기에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장마철이라 좋은 날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여하는 팀멤버들의 갑자스런 질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회 당일 팀멤버들이 이동하는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한시간 반이나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집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셨고, 많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은혜가 넘치는 집회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 성도들은 5시간 이상 산골 길을 걸어서 집회 장소에 하루전 날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을 정도의 사모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적, 육체적 그리고 물질적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 기쁨이 전해졌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며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유익 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